

직격뢰 침입시 배전계통에서 선로 및 기기의 절연설계

정재균* 김상국 이종범
원광대

하동혁
한국전력

Insulation Design of Line and Equipment in Distribution Systems in Case of the Stroke of Direct Lightning Surge

Chae-Kyun Jung* Sang-Kuk Kim Jong-Beom Lee
Wonkwang University

Dong-Hyuk Ha
KEPCO

Abstract - This paper examines the insulation coordination scheme of line and equipment in distribution system when the direct lightning surge strikes. The BIL that is applied in distribution system is not properly considered the performance and operation of arresters. Because of that, the high BIL is being used at partial system. This paper variously analyse the lightning overvoltage of line and equipment with earth of overhead grounding wire and installation types of arrester. From these result, authors examine the rationality of BIL.

1.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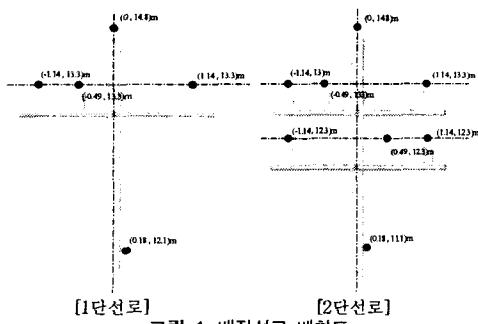
국내 배전계통에 설치되어 운용중인 선로 및 기기 등은 국내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입에 의해 공급되기도 하며 국가간에 다양한 기술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가능한 국제적 교류를 충분히 고려하여 규격이나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며, 규정 및 기준 등은 설계 관점 및 환경의 변화와 기기 및 기술 향상 등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1]. 또한 국내 배전계통의 선로 및 기자는 고장 예방 위주로 절연 기준이 설정되어 과정설계의 우려가 있으며, 선로 공급용량 및 운전 여건의 변화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계통 운영을 위한 적정 절연 여부와 절연협조 경제성에 대한 검증도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내 배전계통에서는 종합적인 관점보다는 필요에 따라 단편적인 검토에 의해 절연강도를 선정한 예가 많아 절연강도가 불합리하게 적용된 사례가 있으며, 절연협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뢰기의 특성 및 성능의 향상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전제적으로 높은 기준 절연강도가 설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배전계통 구성 및 낙뢰 특성과 국내 특성에 맞은 낙뢰 조건, 배전선 설계기준 등을 반영한 EMTP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직격뢰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피뢰기 적용방안 뿐만 아니라 배전계통의 선로 및 기기에 적용하고 있는 절연강도를 검증하여 국내 배전계통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절연협조 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2. 직격뢰 해석을 위한 배전계통 모델링

2.1 배전선로 모델

본 논문에서 검토한 선로 모델은 총 선로 길이가 2km이며 전주 사이의 표준 경간은 50m이다. 또한 선로 양단은 접합되었으며 낙뢰은 선로 중앙의 가공지선에 침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가공지선과 중성선 및 중성선과 대지사이의 접속선과 접지선에 200Ω의 씨지 임피던스와 300μs의 전파속도를 고려하였다. 그럼 1은 국내에서 운전중인 배전계통의 EMTP 해석을 위한 1단선로와 2단선로의 배치도이다.



설계기준-3500(접지공사)[2]와 설계기준-3800(배전선내뢰기준)[3]에 의해 가공지선과 중성선은 매전주 접속하였으며, 가공지선의 접지저항은 5Ω/km의 합성저항치를 적용하였다. 피뢰기 접지저항은 25Ω을 적용하였으며, 피뢰기는 2단선로에서 동일전주 상단과 하단에서 동시에 피뢰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피뢰기가 설치된 전주의 가공지선 접지는 생략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선로조건에 대한 해석을 위해 가공지선은 100m-300m, 피뢰기 설치간격은 각각 100m-500m까지 변화하였다.

2.2 뇌격 모델

배전선로의 뇌격은 구조물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뇌격 침입시 대부분의 씨지는 대지로 흡인되므로 송전선에 비해 약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배전선 뇌격의 해석에 필요한 뇌격전류의 파형은 그림 2와 같은 램프파로 파두장과 파미장은 2/70μs를 선정하였으며, 뇌도 임피던스는 400Ω, 뇌격전류 파고치(I_p)는 각각 10kA, 15kA, 20kA, 30kA를 적용하여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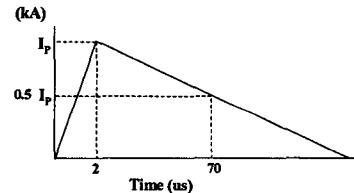


그림 2. 뇌격전류 파형

3. 직격뢰에 의한 뇌과전압 분석

배전선 가공지선에 직격뢰가 침입한 경우 상도체에 대지전압 보다는 주로 애자간 성락과 개폐기와 변압기 등과 같은 설비의 절연성능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4]. 또한 배전계통에서 대부분의 기자재는 상과 중성선 사이에 설치되므로 본 논문에서도 애자간과 기자재가 설치되는 상·중성선간 전압 위주로 검토하였다. 애자간 전압의 성락 기준은 폴리미 애자의 임계 성락전압인 230kV 보다 낮은 LP애자의 180kV로 설정하였다.

3.1 2단 선로

본 절에서는 2단선로로 운전중인 배전선로의 가공지선에 직격뢰가 침입했을 때 가공지선 및 피뢰기 설치 간격과 설치환경에 따른 뇌과전압을 해석하였다.

3.1.1 가공지선 매 100m마다 접지

100m마다 접지된 가공지선의 각 접지개소에 적용되는 저항은 설계기준의 합성저항치 계산식에 의해 41.7Ω을 적용하였으며, 피뢰기는 각각 100m-500m 간격으로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또한 피뢰기는 상단과 하단 간에 1경간차, 2경간차, 2동간차, 2동간격으로 구분하여 피뢰기 설치환경에 따른 뇌과전압을 해석하였다.

그림 3은 피뢰기가 100m마다 설치된 경우의 모델계통이며, 표 1에서는 이 경우 뇌격거리와 뇌격전류 파고치에 따른 뇌과전압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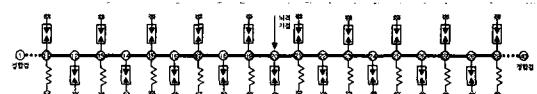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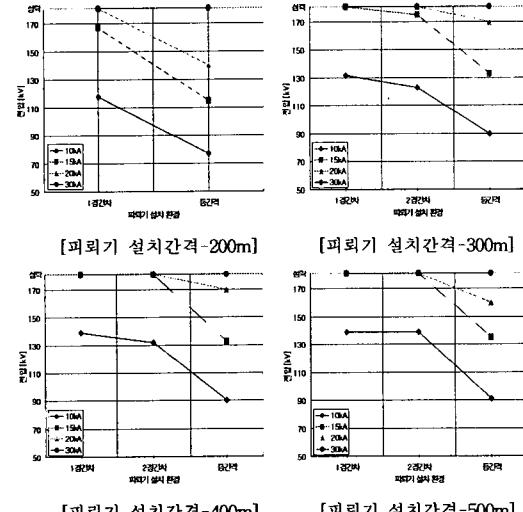


그림 3. 피뢰기 100m 간격 설치시 모델계통(g-100m)

표 1. 피뢰기 100m 간격 설치시 뇌격전류 크기에 따른 해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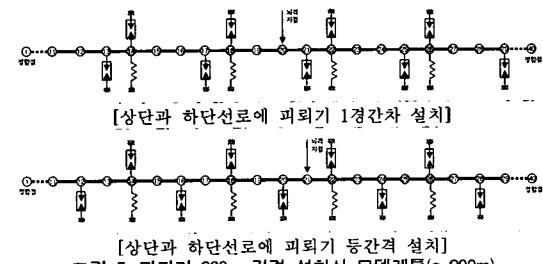
뇌격전류	10kA	15kA	20kA	30kA
뇌격거리 [m]	2단선로 상단 전압[kV]	2단선로 상단 전압[kV]	2단선로 상단 전압[kV]	2단선로 상단 전압[kV]
0	52	67	84	115
50	22	27	34	40
100	10	22	30	35
150	7	17	21	31
200	7	18	21	27
250	9	21	21	25

표 1에서처럼, 가공지선을 100m마다 접지하고 피뢰기를 100m마다 설치한 경우 뇌격전류 30kA이하에서는 애자 및 기기의 절연에 큰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1.2 가공지선 매 200m 마다 접지

100m마다 접지된 가공지선의 각 접지개소에 적용되는 저항은 설계기준의 합성저항치 계산식에 의해 20.8Ω을 적용하였으며, 피뢰기는 각각 100m~500m 간격으로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100m간격으로 피뢰기 설치시, 피뢰기 설치간격이 가공지선 접지간격보다 조밀하기 때문에 가공지선 접지간격에 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공지선 접지간격 200m에서 피뢰기 100m 간격 설치시 뇌격전류 크기에 따른 뇌격전압은 표 1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가공지선 접지간격 300m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기 설치환경에 따른 뇌격침입점에서의 뇌격전압이다. 그림에서처럼 200m 피뢰기 설치시에 1경간차에서는 15kA에서 성락이 발생하였으나 동간격에서는 20kA 이상에서 성락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뢰기 300m 설치시에 1경간차는 10kA, 2경간차는 15kA 동간격에서는 20kA 이상에서 성락이 발생하고 있다. 400m와 500m 피뢰기 설치시에는 1경간과 2경간차의 모든 뇌격전류에서 성락이 발생하였으나, 동간격 설치시에는 20kA 이상에서 성락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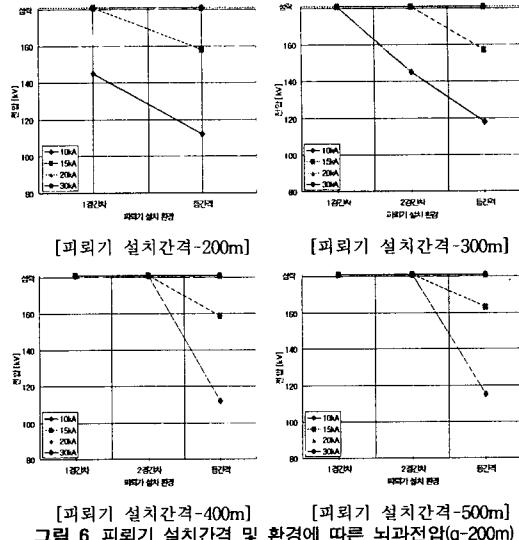


그림 6. 피뢰기 설치간격 및 환경에 따른 뇌격전압(g=200m)

3.1.3 가공지선 매 300m 마다 접지

300m마다 접지된 가공지선의 각 접지개소에 적용되는 저항은 설계기준의 합성저항치 계산식에 의해 13.9Ω을 적용하였으며, 피뢰기 설치환경 및 설치간격은 위의 경우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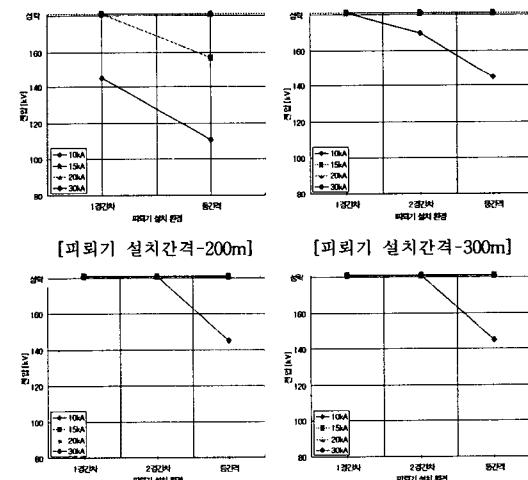


그림 7. 피뢰기 설치간격 및 환경에 따른 뇌격전압(g=300m)

그림 7은 가공지선이 300m마다 접지되어 있고, 피뢰기가 200m~500m 간격으로 설치되었을 때 피뢰기 설치환경에 따른 뇌격침입점에서의 뇌격전압이다. 그림에서처럼, 200m 피뢰기 설치시에 15kA에서 1경간차에서는 성락이 발생하였으나 동간격에서는 157kV로 성락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간격 설치시 20kA에서 성락이 발생하였다. 또한, 300m 간격으로 피뢰기 설치시에는 10kA 2경간차와 동간격 설치, 그리고 400m와 500m 피뢰기 설치시에는 10kA 동간격 설치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성락이 발생하고 있다.

표 2에서는 가공지선이 100m~300m 간격으로 접지되어 있고, 피뢰기가 100m~500m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2단선로에서 검토한 뇌격전압 총괄표이다. 표에서 x는 성락을 의미한다. 표에서처럼 애자간 성락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피뢰기 동간격 설치시가 1경간과 2경간차 설치시보다 차폐효과가 우수함을 알 수 있고, 100m 간격

표 2. 직격뢰에 의한 2단선로 뇌과전압 검토 총괄표

으로 피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서 섬락보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등간격 설치시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가공지선을 100m마다 접지할 때 뇌격전류 20kA의 피뢰기 설치간격 500m까지 섬락 보호효과가 나타나며, 200m마다 접지시에는 15kA의 피뢰기 설치간격 500m, 300m마다 접지시에는 15kA의 피뢰기 설치간격 200m까지 섬락보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가공지선 접지저항 값은 적용 가능한 현실성을 고려할 때 41.7Ω의 접지저항을 갖는 100m마다 접지하는 경우가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뇌격전류 20kA를 기준으로 하여 피뢰기 설치간격 및 환경은 500m마다 설치되어 상단과 하단의 피뢰기는 등간격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배선제통의 절연성 등에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다고 판단된다.

3.2 1단 선로

2단선으로 운전하고 있는 배선선로는 피뢰기 설치환경에 따라 섬락보호 효과가 큰 차이를 보였으나, 1단선로의 경우는 2단선로 피뢰기 설치보다 설치방법이 획일적이고, 이에 따른 각 전주에서의 접지점이 줄어들게 되므로 2단선로에 비교하여 선로 및 기기에 더 가혹한 전진이 유기될 수 있다.

표 3. 직격뢰에 의한 1단선로 뇌과전압 검토 총괄표

가공지선 접지간격	파괴기 설치간격	100m	200m	300m	400m	500m
100m	10kA	○	○	○	○	○
	15kA	○	×	×	×	×
	20kA	×	×	×	×	×
	30kA	×	×	×	×	×
200m	10kA	○	×	×	×	×
	15kA	○	×	×	×	×
	20kA	×	×	×	×	×
	30kA	×	×	×	×	×
300m	10kA	○	×	×	×	×
	15kA	○	×	×	×	×
	20kA	×	×	×	×	×
	30kA	×	×	×	×	×

표 4. 접지저항 변화에 따른 뇌과전압 검토 총괄표(총괄표)

접지간격 뇌격전류	폐회기 설치간격	100m	200m	300m	400m	500m
	접지저항					
100m	10Ω	○	○	○	○	○
	20Ω	○	○	○	○	○
	30Ω	○	○	×	×	×
	5Ω/km	○	×	×	×	×
20kA	10Ω	×	×	×	×	×
	20Ω	×	×	×	×	×
	30Ω	×	×	×	×	×
20kA	5Ω/km	×	×	×	×	×

1단선로에서의 해석은 2단선로와 마찬가지로 가공지선 접지간격을 100m·300m간격으로 변화하고, 피뢰기를 100m·500m간격으로 설치할 때 논과전압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2단선로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표 3에서는 1단선로에서 검토한 논과전압 충발률을 나타내었다. 표에서처럼, 2단선로에 피뢰기 두동각 설치에 비해 설립보호 효과가 저하됨을 알 수 있으며, 가공지선 접지간격 100m를 기준으로 할 때, 10kA에서는 피뢰기 500m 설치시 까지 설립보호가 나타났으나, 15kA에서는 피뢰기 설치간격 100m 설치시를 제외한 경우, 그리고 20kA 이상에서는 모든 경우에서 설립이 발생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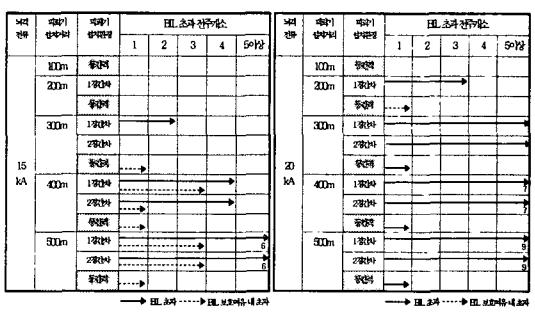
있다. 그러나 가공지선의 접지개소에서 저항을 변화할 때 표 4에서처럼 20kA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Ω으로 접지저항률을 낮출 경우 15kA의 저격전류에서 폐기뢰 설치간격을 500m로 유지해도 섬락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1단선로에서는 가공지선 접지간격으로 100m로 유지되어 각 개소의 접지저항을 낮추는 방안이 섬락보호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3.3 변압기 및 개폐기 절연강도 검토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변압기의 BIL은 125kV이며 이에 보호여유 20%를 적용하면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은 100kV이다. 또한, 설계기준-3800(배전선 내회기준)[3]에 의하면 IKL 11일 이상 지역에 설치된 주상변환기는 200m 이내에 피뢰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계기준을 근거로 3.1.1절에서 해석한 모델을 이용하여 변압기의 기준 열연 강도를 재검討 하였다. 그럼 8에서처럼 2단선로에서 피뢰기 등간격 설치시 15kA에서는 피뢰기 300m 이상 설치시부터 난격 침입점에서 변압기 BIL을 초과하는지 않으나 보호여유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뢰기 1경간차 설치는 300m, 2경간차 설치는 400m의 피뢰기 설치간격에서 변압기 BIL을 초과하고 있다. 20kA의 난격 전류에서는 등간격은 피뢰기 설치간격 300m부터, 1경간차 설치는 200m부터 BIL을 초과하며, 15kA에 비해 BIL이 초과하는 개소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개폐기는 규정에 의해 양단에 피뢰기를 설치한다. 이러한 이유로 개폐기 설치지점에서 상-중성선간 전압과 개폐기 양단전압의 측정결과 피뢰기 제한전압이하로 저각됨을 확인했다



[뇌격 전류 - 15kA] [뇌격 전류 - 20kA]
그림 8. 2단선로 배전계통 변압기 뇌과전압 해석 총괄표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단선로와 1단선로로 운전 중인 배전체통에 직격뢰 침입시 선로 및 기기애 미치는 절연성능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 본선탐색은 1단선로에 대한 것이다.

- 근문에서 문학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100m간격으로 피뢰기 설치시 피뢰기 설치간격이 가공지선 접지 간격보다 조밀하기 때문에 가공지선 접지간격에 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 2) 2단선로의 모든 경우에서 상단과 하단선로 사이에 피뢰기 1경간과 2경간차 설치보다 등간격 설치시 뇌과 전압 차폐효과가 좋게 나타났다.
 - 3) 2단선로 검토결과 가공지선은 매 100m마다 접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뇌격전류 20kA를 기준으로 피뢰기 설치간격 및 환경은 500m마다 설치하되 등간격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배전계통 절연성 성능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다.
 - 4) 1단선로 검토결과 2단선로에 비해 가혹한 전압이 나타났으며, 가공지선은 매 100m마다 접지되어 되도록 지역을 중심으로 접지점의 저항률을 낮추는 방안이 섬락보호에 유리하다.
 - 5) 변압기 BIL 검토결과 피뢰기를 등간격으로 설치하는 유리하며 뇌격전류 20kA에서 피뢰기를 300m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등간격으로 설치해도 뇌격 침입점에서 기준절연강도를 초과한다.

[참 고 문 헌]

- [1] KEPRI, “배전선 절연 설계에 관한 연구”, 1992. 3
 - [2] KEPCO, “배전분야 설계기준-3500(접지공사)”, 1999. 7
 - [3] KEPCO, “배전분야 설계기준-3800(배전선 내뢰기준)”, 1995. 10
 - [4] 電力中央研究所, “配電線 耐雷 設計 ガイド”
 - [5] 전기협동연구, “배전선 내뢰대책” 제40권, 6호
 - [6] KEPCO, “배전기자재 운정업무 편람”, 2000. 5
 - [7] 임용虎, “公務國外旅行歸國報告書”, 한국전력, 1987. 11
 - [8] IEC 60071-1, “Insulation co-ordination (Part 1 : Definitions, principles and rules)”, 1993. 12
 - [9] IEEE Std. 1313.1, “Standard for Insulation Coordination- Definitions, Principles, and Rules”, 1996